

미나미 알프스에 대하여

“바닷속 기억이 새겨진 최고봉”

질은 숲속에 안겨 지금도 꾸준히 높이를 더해가는 산맥지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의 모토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은 일본 알프스 산맥(‘미나미’는 남쪽을 뜻하는 일본어) 최남단의 산들을 포함합니다. 북쪽으로는 가이코마가타케산부터 남쪽의 데카리다케산에 이르는 길고 좁은 약 50km의 길이로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은 미나미 알프스로 총칭되는 가이코마·호오 산맥, 시라네 산맥, 아카이시 산맥의 주요 산맥 세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은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세 개현에 걸쳐 있습니다.

미나미 알프스는 후지산(해발 3,776m)에 이어 일본에서 두번째로 높은 산, 기타다케 산(해발 3,193m)뿐만 아니라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이곳은 100만 년 전 동서 방향의 지각변동으로 해저가 급속히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이 발생하며 이렇게 험난한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미나미 알프스의 융기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그 속도는 연간 3~4mm로 일본의 산맥 지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나뭇잎들이 뽀뽀하게 들어선 이곳의 산림한계선은 최고 2,700m에 이르며 이 경도에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공원이 비교적 남쪽에 위치해 있고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강설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빙하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넓고 오목한 골짜기) 등의 빙하 지형 및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급경사를 형성하는 V자형 계곡이 이곳 지형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공원에는 이곳만의 독특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